

18년간 2MC 대기록...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900회 맞은 MC 임성훈·박소현

내일 특집방송...방송 나왔던 출연자들 기상천외 임무 도전

“평범한 이웃들의 화끈한 이야기들” 수많은 화제의 주인공을 낳았던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900회를 맞는다.

1998년 5월 첫 방송된 이후 18년 3개월 만인 다음달 1일 900회 특집방송을 한다. 그동안 소개된 사연만 4230건이며 시청자들이 제작진에게 보내준 제보는 5만5000건에 달한다.

첫 출발을 함께했던 임성훈, 박소현 두 명의 진행자가 한결같이 프로그램을 지켜왔다. 두 명의 남녀 MC가 20년 가까이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임성훈은 30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900회 녹화를 끝낸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회부터 900회까지 남녀 MC가 변동 없이 진행을 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유일무이한 기록은 박소현 씨의 공이며, 18년 동안 프로그램을 존폐 위기 없이 진행할 있게 한 제작진의 공”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박소현과의 호흡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들 남녀 더블 MC 쉽지 않다고 하는데, 박소현 씨랑 저는 18년 3개월을 같이 하면서 단 한 번도 언쟁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본 적이 없다”고 했다.

1998년 한창때인 28살에 첫 방송 진행을 맡았던

박소현은 이제 46살의 중견 MC로 자리 잡았다.

“남녀가 MC 맡으면 트러블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18년 동안 언쟁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박소현은 임성훈과의 호흡이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끌어올 수 있게 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평소 정말 욕심 없이 방송을 하시는 분(임성훈)인데 1000회를 생각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 안 되겠다 하셨어요.(웃음) 저도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남긴 게 별로 없는데, 기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0회 기록은 꼭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박소현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난 솔한 사람들과 사연 중에서 그림을 그리던 시각장애인인 기억에 남는다면서 “밝은 그 그림을 보면서 세상에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박소현은 “방송을 하다 보면 소진되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하기 싫어지고 쉬고 싶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를 얻어가기 때문에 18년을 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패널 출연자는 개그맨 이성미, 만화가 박광수, 개그맨 박미선, 의사 표진인, 배우 김자옥, 아나운서 김민지, 개그맨 변기수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아나운서 이윤아가 출연 중이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제의 사연들이 있었다.

1999년 방송된 ‘누렁이 구조작전’은 울가미에 목이 틀러 죽음을 내몰린 개 누렁이를 연인원 200명이 동원돼 구조하는 장면과 사람을 극도로 피하던 누렁이가 구조 후에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작진은 2000년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002년 방송된 ‘팬발의 기봉이’는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달리는 지적장애인 기봉씨의 사연을 다뤘는데, 동명의 영화로 제작돼 2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2006년 방송된 ‘잃어버린 얼굴’은 성형중독에 빠져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여성이 복원 수술을 통해 원래의 얼굴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충격과 감동을 줬다.

2004년 태어나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아 방송에 출연했던 정 모군(당시 13세)은, 8년이 지난 2012년 군 입대를 앞두고 150cm가 넘는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사연으로 다시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

그는 “‘세상에 이런 일이’와 함께 자라 왔다”고 했다.

90회 특집에서는 앞선 방송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출연자들이 다시 나와 기상천외한 임무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응답의 저주’ 누른 ‘보검 매직’

〈응답하라 시리즈〉

‘구르미 그린 달빛’ 월화극 1위

시청률 2배 경중...푹푹한 매력으로 시청자 사로잡아

박보검이 ‘응답의 저주’를 보기 좋게 깨부렸다.

박보검-김유정 주연의 KBS 2TV 월화극 ‘구르미 그린 달빛’이 3회에서 전국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월화극 1위로 올라섰다. 수도권 시청률은 17.2%다. 이는 8%대를 기록했던 1~2회 시청률에서 단숨에 2배 뛰어오른 성적이자, 경쟁작과도 큰 격차다.

같은 시간 경쟁한 MBC TV ‘문스타’는 10%,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러’는 7.4%를 기록했다. KBS 1TV ‘가요무대’의 시청률은 11.5%로 집계됐다.

이날 첫선을 보인 ‘달의 연인-보보경심러’는 2회 연속 편성해 밤 11시대 방송한 2회는 9.3%를 기록했다.

남장여자 내시를 소재로 한 픽션 로맨스 사극인 ‘구르미 그린 달빛’은 잘생기고 까칠한 왕세자 이영(박보검 분)과 생계형 남장여자 내시 홍라온(김유정)의 사랑을 쫓는다.

드라마는 비슷한 콘셉트로 대성공한 ‘성균관 스캔들’의 성공 공식을 따르면서도 좀 더 어리고 푹푹한 주인공 배우들의 매력을 한껏 살리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에서 소심하고 예민한 바둑천재 최택을 연기하며 스타덤에 오른 박보검은 차기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최택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또 다시 호응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응답하라 1988’의 동료인 해리와 류준열이 차기작에서 잇따라 실패하며 ‘응답의 저주’를 깨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이 드라마는 3회에서 홍라온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춰왔던 이영이 마지막에 커밍아웃하는 내용을 보여줬다.

한편, 한-중 동시 방송을 위해 사전제작된 ‘달의 연인-보보경심러’는 공들인 무술 장면을 보여주며 시선을 끌었다.

고려시대 잡귀를 쫓는 나례연에서 펼쳐진 무술 장면은 매끄러운 와이어 액션과 물 흐르듯 하면서도 절묘가 있는 칼의 향연이 어우러지며 높은 예술성을 보여줬다.

이준기-아이유 주연의 이 드라마는 현대 여성이 고려 시대로 이동한 타임 슬립을 소재로 한 로맨스 사극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생생정보 스페셜(재)	00 창사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한부로 애뜻하게)(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W)(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골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2	00 한국인의 밤상 50 이웃집 찰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튼생활제2	00 자동차부품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여사 쿵다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물라츠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원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특별기획, 꿈을 향해 달린다! 독서토론회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24 55 특집다큐 내 생애 첫 올림픽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방송의날 기획 송터 VR 특집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한부로 애뜻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W)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리인 40 고 구봉서 추모특집 (영원한 막동아, 별로 지다)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은 사람들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애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북벌)	09:40 아버지의 귀환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키레스스 닭 요양주부와 부추전)	15:05 두키 탐험대 15:1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오솔 상사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롱 16:30 Why - 최고!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시계마을 타키톡! 20:40 다큐 오늘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덩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코코몽3 14:25 짝꿍 팡 14:55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8 황하 3부 모친지은(母親之戀)) 21:30 한국기행 (비밀의 문이 열리는 3부 그 섬엔 누가 특별한 것이 있다) 21:50 EBS 다큐 프리덤 (앙트레프렌. 경제강국의 비밀) 22:45 극한직업 (사해안 민어잡이) 23:35 장수의 비밀 (수호할배는 60번째 연애 중)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1일 (음 7월 29일 乙酉)

<p>子 48년생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60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대산 같이 쌓여있다. 72년생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한다. 84년생 별다른 성과가 없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86, 05</p>	<p>午 42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54년생 애석하리라. 66년생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발전은 도모할 수 있다. 78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5, 68</p>
<p>丑 49년생 아저 하면 당하니 끝까지 망설이지 말라. 61년생 지금 놓친다면 관련한 지경에 이르리라. 73년생 여러 번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85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79</p>	<p>未 43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이로다. 55년생 이면에서 가려져 있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67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하는 시점이다. 79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76, 44</p>
<p>寅 50년생 도모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마련이다. 62년생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에 대한 고찰이 깊어진다. 74년생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다. 86년생 조바심을 버려야만 성사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행운의 숫자 : 95, 58</p>	<p>申 44년생 오래 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56년생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68년생 처음에는 거칠더라도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다. 80년생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7, 67</p>
<p>卯 51년생 잠시 기우뚱하던 배가 반동으로 바로 서는 양태이다. 63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이다. 75년생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행하다 보면 실속을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 87년생 파격적인 행태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31, 26</p>	<p>酉 45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57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69년생 불가피한 상황이니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81년생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8, 53</p>
<p>辰 40년생 순식간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52년생 점점 좋은 조건으로 변해가는 성국이다. 64년생 각개의 현상에 주목하라. 76년생 알고고 내버려 둔다면 큰 코 다친다. 88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연원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15</p>	<p>戌 46년생 단처럼 잘 잡아낸다면 진전을 보이리라. 58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70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2년생 똑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04, 65</p>
<p>巳 41년생 우회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이미 이룬 셈이다. 65년생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양상이다. 77년생 빈 곳을 메우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크다. 89년생 지금 확인하기에는 이른 단계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60, 35</p>	<p>亥 47년생 고목이 불을 만나서 짙을 트일 수 있다. 59년생 깊은 인연이니 중히 여기는 것이 깊은 부른다. 71년생 세월을 두고 논쟁되어 온 현상이 반전되는 시점이다. 83년생 길상이 깨끗하면 더욱 밝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13, 8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